정원·도서관 바캉스… "올 여름은 순천으로 오세요"

순천시립도서관 2000명 다녀가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
국가정원서 여름 깜짝 이벤트
선물교환권 등 풍성한 상품 마련

순천시가 무더운 날씨 속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서지로 주목 받고 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은 시원한 실내에서 독서를 즐기고,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고 있다.

순천시립도서관 6개 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 여름 독서교실, 그림책 타고 우주여행 등 21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특히 △신대도서관 울림시네마(영화상영) △연향도서관으로 떠나는 클래식 탐험(공연) △기적의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그림책학교(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즐기고,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다.

또 여름 이야기, 납량 호러존 등 특색 있는 주제의 북큐레이션(도서 전시)이 운영되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분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삼산, 신대도서관 내 마련된 DVD 열람실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연향도서관의 웹툰 코너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은 9월까지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 '여름의 무대, 이수지의 그림책'을 진행한다. 한국인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여름 분위기에 맞는 전시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순천을 찾고 있다. 27일에는 '이수지 작가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어, 이수지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휴가시즌을 맞아 6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흥미진진한 보물찾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을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깜짝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드넓은 정원 곳곳에 선물 교환권이 숨겨져 있어, 이를 찾아낸 관람객은 국가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받아 갈 수 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이벤트는 순천만국가정원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 접속해서 팔로잉 후 댓글을 통해 보물이 숨겨진 장소에 관한 힌트를 요청하면 된다.

시는 이를 확인하고 DM(메시지)을 통해 사진 힌트를 전송하면 참여자들은 국가정원에 직접 방문해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 된다.

이번 보물찾기 이벤트는 여름철 국가정원에 색다른 재미와 매력을 더하고 단순 관람을 넘어 새로운 놀이문화 콘텐츠의 창조 공간으로서의 정원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국가정원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하여 풍성한 선물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며 "이번 여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책과 함께 여유로운 도서관 바캉스를 즐기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휴관 없이 학습실 개방·운영
구례군매천도서관

구례군 매천도서관은 지난 1일부터 지역민들의 효율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휴관일인 금요일에도 학습실을 개방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군민들의 각종 자격증 공부와 새로운 직업 준비를 돕기 위해 학습실 개방을 결정했다.

학습실 개방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자료실은 정상 운영일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직장인들의 도서 대출과 반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반납 및 예약 대출기가 1층 출입구에 설치됐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5개월간 학습실 개방을 시범 운영한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
외형·찻물색·향·맛·우려낸 잎 평가

보성군이 지난 2일 봇재(봇재홀)에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품평 전문가인 10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차의 외형, 찻물의 색, 향, 맛, 우려낸 잎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오감(五感) 관능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보성군 차 제조가공업체(26개소)에서 29개의 제품이 출품됐으며, 엄격한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26개 제품이 군수품질인증을 받았다.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심의를 통과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받는다. 인증 상품은 군수 품질 인증 상표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송민섭 기자

고흥군은 5일 고흥읍 등암리에서 공영민 군수와 지역농협장,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극조생종 벼 '진옥벼'를 수확하며 기쁨을 나눴다. 고흥군 제공

'새소득작목 육성' 대상자 모집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소득 증대와 새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농촌진흥 시범사업을 오는 22일까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이번에 공고된 원예연구분야 농촌진흥 시범사업은 기후변화 새소득 작목 선발 확대(애플망고·레드향 등 아열대 작목),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물 육성(참다래·고사리 등), 북부 지역 새소득작목 육성(부추·엽채류 등) 등 3개 사업으로 아열대과수, 채소, 약용작물 분야 영농현장 문제 해결, 기후변화 대비 장흥 대표 소득작물 발굴과 집단화, 단지화에 그 목적이 있다.

각 시범사업은 농업인 또는 마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은 읍면상담소에 사업별 추진 요령과 시범 요인을 문의해 작성 접수하면 현지 조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관련 사항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장흥군 농업기술센터(061-860-6541)로 문의하거나 장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andong.go.kr/agritec),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열린광장 새소식(https://jares.jangheung.go.k)을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군, 해풍 맞고 자란 고품질 벼 올해 첫 수확

고흥군이 올해 햅쌀용 벼 첫 수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5일 고흥읍 등암리에서 공영민 군수와 지역농협장,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극조생종 벼 '진옥벼'를 수확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번 수확은 지난 4월16일 모내기를 한 후 116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오는 25일까지 모든 수확을 마칠 예정이다. 진옥벼는 수량성이 양호하고 식미가 좋다는 평을 받는 고품질 품종이다.

고흥군은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타지역보다 10일에서 보름 정도 빠르다는 점을 활용해 극조생종 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고흥군의 조생종 벼는 417ha 재배되어 2502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벼 수확 시연을 마친 공영민 군수는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조생종 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군에서는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광양시 백운제테마공원 물 체험장 인기몰이

광양시는 지난 7월23일 개장한 백운제테마공원 물 체험장(봉강면 성불로 213일원)이 개장 2주째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물 체험장 주말 평균 이용객은 하루 500여 명이다. 지난해 2주에서 올해 4주로 확대 운영 방침을 밝힌 백운제 테마공원 물 체험장은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더욱 높아졌고 개장 2주 동안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추가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말마다 진행되는 어린이 수중 물총놀이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물 체험장에서는 깜짝 이벤트를 통해 광양시 홍보 물품을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4대 계곡, 불고기 등 광양의 주요 관광지와 유명 먹거리를 소개해 광양시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안전과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안전요원을 증원해 매일 21명의 안전 및 운영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구급약품 및 구명장비를 보강했다. 또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철저한 수질 관리와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동시 수용인원(250명)을 선착순 제한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늘막과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난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시설물 등 개선에 반영했다.

물 체험장은 오는 18일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45분 운영 후 15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백운제 테마공원 물 체험장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3542)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행사
고흥군, 총감독 위촉식

고흥군은 김정희 교수를 올해 11월 열리는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예술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희 예술 총감독은 고(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로, 현재 미국 몽고메리 칼리지 교수이자 비영리 천경자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위촉된 김 예술 총감독은 기념행사의 주제 도출과 작품 섭외를 비롯해 전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 기획하며, 정혜연 전시 감독과 이지연 큐레이터가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고흥에서 천 화백을 기리고 회상할 수 있는 자료와 공간이 없는 것이 지역의 아쉬움을 반영하여, 지역 콘텐츠 계발을 위한 선양사업의 시작점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념전시에는 천경자의 작품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 유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며, 작가로서의 이름을 알린 자서전 등도 함께 전시해 천경자의 다양한 모습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희 예술 총감독은 "이번 전시를 통해 어머니의 고향인 고흥에서 성공적인 전시를 개최하여 더 많은 사람이 천 화백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천경자 화백은 세계적으로 활약한 고흥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탄생 100주년 회고전을 고향인 고흥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만큼 품격 높고 볼거리가 가득한 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는 오는 11월11일부터 12월 말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읍 G갤러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